

# 더민주당 주장 야권연대 선거영향 '미미'

## 정치적 필요에 따라 하는 연대는 유권자들 거부감으로 역효과 초래 예상

더불어민주당의 야권 연대 주장이 선거 관세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선거가 채 10여일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는 극적인 후보 단일화 효과를 볼 수 없다는 것이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 대표는 30일 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산하 회의에서 "야당이 보다 많은 의석을 확보하기 위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일반 국민의 성원과 야당의 후보자 연대이고 이를 실현해야 한다는 소망이 대단하다"며 "야권 후보자간 연대가 이뤄질 경우 중앙당에서 지원할 것을 약속한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전북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 일동 역시 30일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야권이 뿔뿔 뿔쳐 싸워도 모자랄 판에 야권이 분열됐고 새누리당이 과반정당을 차지할 처지에 놓였다"면서 "이래서는 안된다. 최악의 경우 개헌 의석을 내주게 되면 새누리당에게 장기집권의 길을 터주는 일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전북지역 국민의당 후보들은 안철수 대표의 선거연대 불가판에 대해 입장을 꼭 밝혀야 한다. 수도권지역 야권연대 추구에 함께 동참해 달라"고 했다.

전북 정치권은 이를 두고 "후보들은 그렇

다 치더라도 김종인 대표의 경우는 연대 주장만 했지 어느 선거구 어느 후보들간 연대 시켜야만 한다는 구체적인 계획도 없다"며 부정적 시각이다.

무엇보다도 국민의당이 연대 가능성을 일축하는 상황에서 연대 공세를 강화하는 것은 향후 책임회피 포석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오히려 정치적 필요에 따라 마지못해 하는 연대는 유권자들의 거부감으로 역효과를 낼 것이라는 게 공통된 반응이다.

선거때마다 승리를 위한다는 명목 아래 범일식 연대는 오히려 독이 된다는 것. 또한 연대는 오히려 보수층의 결집을 초

래, 역효과를 가져올 것이란 의견도 있다.

정치 한 관계자는 "사실 '일어나야구'도에서 야권표 분열을 막기 위해선 단일화가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측면을 부인할 수는 없는 게 현실이다. 그러나 야당이 뭉치면 위기감을 느낀 여당 지지층도 집결한다. 2012년 총선과 대선에서 이런 모습을 보였다. 지금의 야권에 단일화는 득보다 실이 많은 전략이다"고 했다.

이어 그는 "유권자가 언제나 의도한 대로 움직여주는 것도 아니다. 유권자도 눈과 귀가 있다. 단일화해야 이긴다는 명제에 사로잡혀 연거푸 패배했다면, 거꾸로 '다양' 구도가 유리하다는 전환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특별취재반

## 4.13 선거 RUN·RUN·RUN

### 전희재 후보, "국립 한옥진흥원 건립 건의하겠다"

새누리당 전희재 국회의원 후보(전주갑)는 "한옥과 관련된 기술개발 및 보급, 기술인력 양성, 한스타일 산업에 대한 지원 등 한옥진흥정책을 주도하는 '국립 한옥진흥원 건립'을 중앙정부에 적극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국립 한옥진흥원 건립은 전통고유자산에 혁신과 창의의 뜻을 입힌 전주한옥마을이 전통문화와 창의력이 결합된 지역발전 선진 성공모델이라고 지역희망박람회 개막식(2013. 11. 23. 부산 벡스코)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언급에 따라 전주사가 추진중인 사업이다."

"국립 한옥진흥원"은 전주시 서학동과 한옥마을 인근에 2017년부터 국비 총 200억을 들여 한옥문화센터, 한옥연구 및 교육센터, 아카이브 및 DB구축실, 실습실 등 건립하고 한옥기술자 인력 양성, 한옥관련 기술 등 한옥 우수성 전파 및 전국 확산을 주도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전희재 후보는 "이번 선거에서는 정권교체, 정권심판론의 말만 무성한 선거가 아닌 정책과 대안으로 유권자 여러분의 평가를 받고 싶다. 전주부시장, 전라북도 행정부지사 등 행정경험을 갖춘 여당후보가 국회의원이 된다면 전북발전은 물론 당당하다"며 전주사민들의 적극적 지지를 호소했다.



/특별취재반

## 선거비용 오늘부터 인터넷에 공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31일부터 4월13일까지 4·13 총선 후보자가 사용하는 선거비용의 수입·지출내역을 정치자금공개시스템(http://ecost.nec.go.kr)에 실시간 공개한다고 30일 밝혔다.

공개대상은 예비후보자 등록 이후의 모든 수입·지출 내역이다. 후보자는 선관위에서 제공한 정치자금회계프로그램을 이용해 선거비용 수입·지출내역을 입력하면 된다. 유권자는 선관위 홈페이지 내 '정치자금공개시스템'에서 선거운동에 소요되는 자금을 어떻게 조달하고 어디에 얼마나 사용했는지 등에 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선관위 선거비용 공개 여부를 사전에 파악한 결과,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자 944명 중 53.2%에 해당하는 502명이 참여의사를 표명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본격적인 선거운동이 시작되는 31일부터는 더 많은 후보자들이 참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특별취재반



선거벽보 점검

제20대 국회의원선거 공식선거운동일을 하루 앞둔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관계자들이 종로구 후보자 선거벽보를 살펴보고 있다.

/특별취재반

## 최형재 후보, 선거대책본부 발족식

더불어민주당 전주를 최형재 후보는 30일 효자동 이동교 사거리 선거사무실에서 선거대책본부 발족식을 가졌다.

선대본은 김영수(도의원, 환경복지위원장), 박현규(전주시의회위원장), 김동길(전 도의원)총괄선대위원장을 필두로 5분부 15개 위원을 구성해 각계·층에서 활동 중인 150여명을 위촉했다.

최 후보는 "박근혜정부 들어 소득의 불평등 갈수록 심해지는 지역격차로 국민들은 희망을 잃고 살아간다"며 "더민주당은 4.13총선에서 승리해 대안을 제시하는 수권정당으로서 삶의 희망을 드릴 것"을 약속했다.

한편, '더불어 경제살리기 최형재후보 선거대책본부'는 31일 효자동 상산교 사거리에서 대대적인 출정식을 갖고 공식적인 선거운동의 시작을 알린다.



/특별취재반

## 순하규, 분당 김병욱 후보 선거지원

전남 강진에서 침거해온 순하규 더불어민주당 전 상임고문이 30일 오후 경기 성남 분당을에 출마하는 김병욱 후보의 선거사무소를 찾았다.

손 전 고문은 지금까지 자신과 가까운 후보들에게 지지메시지 등을 보냈지만 본인이 직접 선거사무소를 찾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손 전 고문은 이날 김 후보의 선거캠프를 방문,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김 후보를 지지해줄 것을 요청할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거리유세 여부는 결정되지 않았다.

김병욱 후보는 이날 뉴시스와 가진 전화 통화에서 "정계은퇴를 한 상황이기 때문에 (손 전 고문에게)선거지원 요청을 할 수가 없었다"며 "그런데 개인적 관계가 두텁고 하니 이심전심으로 와주는 것 같다"고 말했다.

김 후보는 손 전 고문의 싱크탱크인 동아시비리재단 사무총장을 맡고있는 최측근으로, 손 전 고문은 최근 이뤄진 김 후보의 사무실 개소식에도 축하메시지를 보냈다. 한편 손 전 고문은 지금까지 더민주 이언주 의원, 국민의당 김성식 최고위원 등에게 메시지를 보내 조만간 정치복귀가 이뤄지는 것 아니냐는 관측을 낳았다.

/이성주 기자

# 김무성 대표 "이번 총선 끝나면 사퇴할 생각"

## "상향식 공천제 관철 실패·공천 파동대표로서 책임져야"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30일 "총선 승패에 관계없이 선거를 마무리 한 이후에 사퇴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총선 직후 사퇴의사를 밝혔다.

김 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종전 언론인 모임인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사퇴 시점에 대해선 "이번 총선이 끝나면 뒷 마무리를 잘하고 사퇴할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김 대표는 다른 최고위원들과 이 문제를 논의한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논의한 바 없다"며 "오늘 처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저는 이미 제 마음에 결심한 바가 있다"며 "국민여러분께 수심 번 약속했던 우리나라 정치발전을 위한 정치혁신 결정판인 공천제도 개선, 국민공천제를 실시하겠다는 약속을 100퍼센트 지키지 못하는데, 또 그 문제 때문에 당이 일대 혼란이 있었고 언론보도에 정신적 분당 사태란 표현도 나올 정도로 사태 맞닥뜨린 것.

당 대표로서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100% 상향식 공천제 관철 실패 및 공천 파동에 대한 책임을 지고 당 대표에서 물러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김 대표는 자신의 옥새파동으로 출마가 좌절된 이재만 류재길 후보에 대해 "두분 후보에게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공식 사과했다.

그는 또 두 사람이 자신에 대해 법적대응을 경고하고 있는데 대해 "그런것도 각오하고 결정할 것이다. 저에게 그런 벌이 내려진다면 달게 받겠다"고 답했다.

김 대표는 특히 박 대통령을 유승민 의원을 겨냥, 배신의 정치를 심판해달라고 했는데 어떻게 생각하는냐는 질문에, "대통령에 대해서는 말씀드리지 않겠다"고 즉답을 피했다.

그는 그러나 "다만 유승민 의원은 지난 전당대회 때 대구 초선 6명과 같이 저의 경쟁자(서청원 최고위원)를 지지 선언한 분"이라며 "반면 이재만 후보는 전당대회 때 저를 지지하고 도와주었던 사람이다.

제가 그걸 결정할 때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나라고 반문했다.

그는 또 자신의 옥새파동을 통해 유 의원과 함께 최대 수혜자인 이재오 의원에 대해서도 "이재오 의원은 지난 18대 총선 때 본인이 직접 한 것은 아니나 저를 공천 받지 못하게 한 그룹중의 좌장 역할을 한 분"이라고 설명했다.

김 대표는 이번 공천에서 자신의 측근들이 대부분 생환했다는 지적에 대해 "41곳의 경선 결과는 국민들의 뜻이 반영된 결과로 거기에 대해 제가 왈가왈부 할 일이 없다"며 "분명히 말하지만 저는 계보가 없는 사람"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또 "그동안 공천 과정을 지켜보면서 충분히 알 수 있는 그런 분위기였다"며 "공관위원장은 당 대표도 공천을 못받은 적 있다고 하고, 저 보고 공천에 일체 간섭하지 마라. 그걸 선언하라, 사과하라 는 일까지 있지 않았나"라고 반문했다.

이어 "오래전부터 비례대표 단 한석도 추천하겠다고 몇십번 약속을 했고 이번에도 단 한명도 추천하지 않았다"며 "다른 최고위원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성주 기자

## 이춘석 후보, 일방적인 피켓시위 엄중 대처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국회의원 후보(익산갑)는 30일 성명서에서 다수의 피켓 시위에 대한 후보측 입장을 밝혔다.

이춘석 후보측에 따르면 30일 오전부터 알지못하는 사람들이 이춘석 후보 선거사무소 앞에서 H위탁업체 문체와 관련한 피켓시위를 진행하고 있다.

이에 이 후보측은 "특정인들이 후보자가 마치 비위에 연루된 것처럼 흑색 선전을 제기하게 된 근거와 배경에 대해 심각한 의문을 갖고 있다. 수사기관의 수사를 통해 명명백백히 밝힐 것이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측은 "H위탁업체는 전일시장 시절 익산시와 계약을 체결한 업체로 후보자 측과는 어떠한 연관도 없다. 그러함에도 어떠한 사실관계 확인조차 본인들의 주장에 대한 최소한의 근거도 없이, 일방적으로 마치 후보자가 연루된 것처럼 주장하는 것은 후보자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선거에 개입하려는 의도가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특별취재반

## 박종길 후보, "익산역 복합환승센터 개발사업 연계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발굴하겠다"

새누리당 익산을 박종길 국회의원 후보(이하 박 후보)는 30일 '4월 1일 KTX호남선 개통 1주년을 맞아 익산시민이 전국 반나절 생활권에 정착했으며, 앞으로 익산역복합 환승센터 개발사업이 연계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발굴하겠다'고 밝히고 지지를 호소했다.

특히 박 후보는 "호남선 KTX가 가져온 가장 큰 익산역의 경우 가장 큰 수혜역으로 불리는 12만명 KTX와 연계한 관광상품 개발에 힘을 쏟고 역세권 도심 정비 개발추진으로 행복한 도시 물류와 사람 중심의 도시기능을 회복해 나가겠다"고 당찬 포부도 밝혔다.

이에 박 후보는 "KTX가 개통하면 크게 격정했던 게 의료나 소규모를 위한 수도권 유통현상, 이른 바 '빨대효과'였는데요. 다행히 상당히 미미했다는 평가가 된다면서 익산역복합 환승센터 개발사업도 6년째 답보상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국토부, 전북도 기획재정부 간의업무협의를 통해 철도시대의 견고한 세부적 지원사항, 지역사회 자원의 준비를 지원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박 후보는 "산업, 역사 문화 등 지역특화 자원화 KTX 개통효과를 연계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발굴 하는데 서둘러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제안을 받아 익산권의 교통이나 생활환경에도 큰 변화를 가져 올 전망도 밝혔다.

한편 오는 8월 수서발 KTX도 개통되어 철도 교통과 소규모 교육 중심의 중장기적 대비책도 요구되고 있다.



/특별취재반

## 이한수 후보, 선거사무소 개소 본격 세물어

국민의 당 익산갑지역 이한수 국회의원 후보(이하 이 후보)가 4월 2일 오후 3시 모현동 선거사무소에서 개소식을 갖고 본격적인 세물어에 돌입한다.

이날 개소식에는 국민의당 주요 인사와 시민 등이 참여한 가운데 총선 승리를 다짐하고, 주민 화합 한마당 잔치로 치러진다.

이 후보는 이날 민생 그리고 서민을 위한 살맛나는 익산 만들기를 위한 청사진 6대 공약을 제시하며 익산 재도약을 위한 비전을 선포한다.

그는 이한수와 함께 해온 어제와 오늘 그리고 익산을 다시 세우기 위한 내일에 대한 청사진을 밝힌다.

또 익산 시장을 책임졌던 한 정치인으로서 익산시 경제에 대한 버팀목이 될 희망이 담긴 10대 공약 일자리 창출, 100년 먹거리, 1000년 고도문화 정착 등을 통한 새 익산 건설에 맞출 올릴 계획이다.



/특별취재반

## 김관영 후보, 맞춤형 일자리 10대 공약 발표

군산지역 국민의당 김관영 후보는 30일 GM대우 회복을 위한 특위 발족과 전통시장 활성화와 연계한 청년 창업특구 조성 및 지정 등의 내용이 담긴 맞춤형 일자리 민생 공약을 발표했다. 김 후보가 이번에 발표한 '일자리 10대 공약'은 ▲GM대우 회복을 위한 특별위원회 발족, ▲한중경협단지 등 외자 및 대기업 새만금 투자 유치로 일자리 창출, ▲새만금신항육상지구 발전을 위한 특별법 제정으로 질 좋은 일자리 육성, ▲전북 이전 기업에 지역민 일자리 쿼터제 도입 ▲전통시장 활성화와 연계한 청년창업특구 조성 및 지정, ▲지역맞춤형 일자리 사업 및 산학협력 일자리 공모 사업 선정 지원, ▲청년고용촉진특별법 민간 기업 확대, ▲청년 일자리 모델랜드 조성, ▲사회적 경제 기업 육성 통한 근로취약계층 취업 확대, ▲대한상공회의소와 연계 통한 인력 미스매칭 해소 및 종합 재취업 지원 서비스 활성화 등이다.



/특별취재반

## 김춘진 후보, "새만금 동북아의 경제수도로"

더불어민주당 김춘진 국회의원 예비후보(김제부안)는 김제부안 선거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김 후보는 30일 도의회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새만금 지역은 새로운 동북아의 경제수도로 만들 때 대한민국의 희망과 미래가 있다"고 말했다.

김 후보는 이어 ▲동서2축 도로 조기 완공 ▲김제지역에 KTX역사 건립 ▲역사이전 물류단지 조성 ▲직불금 확대 등 2020년까지 대외경쟁력을 갖추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이 되도록 내부개발을 완료하겠다"고 했다. 한편 김 후보는 최근 김제시의회 의원 11명 탈당과 관련한 질문에서 "탈당만 했다면 모르겠는데 국민의당 입당까지 해서 아무래도 아쉬움이 많다. 최규성 공동도당위원장의 뜻은 아닐 것이다"며 언급을 피했다.

그러면서 김 후보는 "정책선거를 통해 일련의 사태를 헤쳐나갈 것"이라고 했다.



/특별취재반